

조선후기 유물에 나타난 십장생문의 조형성 분석 - 자수품을 중심으로 -

이 하 정* · 이 상 은*

건국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과 교수*

Formal Characteristics of the Ten Traditional Longevity on Relics of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 With a Focus on Embroideries -

Ha-Jung Lee⁺ · Sang-Eun Lee^{*}

Ph. D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Konkuk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Konkuk University^{*}

(2009. 12. 30. 접수; 2010. 2. 3. 수정; 2010. 2. 5. 채택)

Abstract

The ten traditional symbols of longevity are represented as 10 which means perfection in oriental philosophy, the sun, mountain, water, cloud, rock, pine tree, elixir plant, tortoise, crane and deer. each subjects symbolizing longevity had used in isolation. unlike China and Japan, the ten symbols of longevity became a fixed form and was widely used in paintings, household effects and clothes in Korea. therefore, It will be a meaningful study how the ten symbols of longevity, as one of subjects in painting, changed into a pattern on clothes.

The ten symbols of longevity was affected by various philosophies and religion. especially, it laid emphasis on order by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theory. the order was applied to arrange each subjects and use colors carefully. the sun colored with red and was on the upper. the pine tree colored with green meant tree and was on the left. the earth and the mountain meant the soil and was on the center. the rock meant the iron and was on the right. the water meant the water and was on the bottom.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embroideries like spectacle cases, spoon cases and pouches. the scope of study was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because there are more relics in the Joseon Dynasty than any other times.

Key Words: The ten traditional symbols of longevity(십장생),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theory (음양오행설), Embroidery(자수품), the Joseon Dynasty(조선시대)

Corresponding author ; Ha-Jung Lee

Tel. +82-10-8181-9031, Fax. +82-2-6243-2771

E-mail : grandlej@empal.com

I. 서론

장수(長壽)는 인간이 태고이후부터 간절히 염원해 온 오랜 욕망의 하나이다. 그런 오래 살고자 하는 바람이 응축되어 회화로 표현된 것이 십장생도(十長生圖)라 하겠다. 십장생이란, 열 가지의 불사장수(不死長壽)의 상징물로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 등 열 가지의 장생물을 이르는 말로, 오랜 역사를 통해 생성된 여러 가지 장생의 상징물들이 하나로 응집되어 회화 속에 표현된 것으로 우리 민족의 다양한 사상과 신앙을 살펴볼 수 있다. 장생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소재가 각기 사용되다가 하나의 회화적 장르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로, 문헌과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십장생이라는 소재가 이후 조선시대를 거치며 하나의 정형화된 형태로 회화나 생활도구, 복식에 두루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십장생문이 회화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 유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별로 나누어 연구되지 않고 민화를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조형성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¹⁾ 하지만 전문 화가에 의해 그려진 민화와는 달리 자수는 여성에 의해 표현된 규방문화의 하나로 그 시대의 다른 조형예술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화로서의 십장생도가 자수품과 같은 복식물에서 장식문양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십장생문의 색채와 조형적 특징을 분석해 보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 조사에 의한 십장생문의 기원과 배경사상을 살펴보고, 국립민속박물관과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자수유물 중에서 십장생문이 많이 나타나는 주머니, 안경집, 수저집, 베갯모 등을 중심으로, 상태가 양호하여 분석이 용이한 작품들을 선정하였다. 여러 폭으로 나뉘어져 그려지며 회화적인 요소가 강하고, 한 화면에 모든 십장생을 표현하는 자수소품과는 그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 병풍과 자수유물 중에서도 십장생문 구성요소 중 몇 가지만을 취한 작품도 제외시켰다. 자수유물 중 십장생의 열 가지 구성요소를 두루 갖춘 16점의 유물만을 선

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자세한 색상 분석이 목적이 아닌, 색에 사용된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함이므로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색채분석을 하였다. 십장생도가 순수한 회화적 양식으로 화폭에 제작된 것은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로 보여 지며 자수유물이 조선시대 후기 작품이 많은 관계로, 주로 조선시대 후기 자수유물에 나타난 십장생문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자본주의 원리에 입각한 자유무역시장이라는 세계시장에서, 세계화와 보편화는 더 이상 세계가 추구하는 이상향이 아니다. 국가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각 나라를 대표하는 독창적인 이미지를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통 이미지, 전통색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국이나 일본의 문화와 구별되는 문화 정체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고유한 형태로 발전해 온 십장생문에 대한 연구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이미지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II. 십장생문의 이론적 배경

1. 십장생의 정의

십장생이란 열 개의 불사장수(不死長壽)의 상징물인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 등 열 가지의 장생물(長生物)을 이르고, 경우에 따라서 달, 대나무, 천도 등 몇 종류가 더 보태지거나 축소되어 그려지기도 하여 반드시 10가지의 소재가 등장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십장생도란 그림에 나타난 장생물의 숫자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장생도(長生圖)라고도 한다.²⁾ 대상 중 한가지만을 강조하여 그리는 경우에는 군학십장생도(群鶴十長生圖), 또는 군록십장생도(群鹿十長生圖) 등 명칭이 불기도 한다.

우리나라 문헌상에 나타난 십장생의 정의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려 말의 성리학자 이색(李穡, 1328~1396)의 『목은집(牧隱

集』으로, 십장생의 구성이 해, 구름, 물, 산, 소나무, 대나무, 영지(불로초), 거북, 학, 사슴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십장생문의 기원

고대부터 인간은 오래 살고자하는 바램을 그림, 문자, 문양으로 표현하였다. 장수를 상징하는 소재들은 사상과 역사를 담고 있는 복합적 상징물로서 자연에 대한 경외심 때로는 개국신화, 신앙 등을 통해 잉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십장생을 이루고 있는 소재들의 발생한 시기를 명확히 밝히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십장생의 소재들이 한 화면에 도상(圖上)으로 나타나는 시기와 문헌상에 십장생에 대한 언급을 통해 십장생이 통일된 하나의 화재(畫材)로 발생한 시기를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십장생에 대한 가장 오래된 문헌기록으로는, 고려 말의 성리학자 이색(李穡, 1328~1396)의 『목은집(牧隱集)』이다. 이 책에서 ‘歲畫十長生’, ‘日雲水山松竹芝龜鶴鹿’³⁾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통해 세화십장생이 열 가지의 상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미 하나의 화재로 자리매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전기의 성현(成俔, 1439~1504)의 『허백당집(虛白堂集)』에서 1502년 임금이 하사한 세화인 십장생에 대해 쓴 <수사세화십장생(受賜歲畫十長生)>이라는 시에서 日, 月, 山, 川, 松, 竹, 龜, 鶴, 白鹿, 丹芝의 열 가지를 들고 각각의 의미를 노래했다.⁴⁾

‘歲畫十長生’을 통해 십장생이 세화(歲畫)로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세화에 대한 문헌상의 언급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중종 12권에 세화란, 세시(歲時)에 미리 화사(畫師)로 하여금 각기 화초·인물·누각(樓閣)을 그리게 하고, 그림을 아는 재상에 명하여 그 우열(優劣)을 상하(上下)의 등급으로 매기게 하여 부록(付錄)하고, 그 그림은 골라서 내용(內用)으로 하고, 나머지는 재상과 근신들에게 하사하는 것⁵⁾이라고 자세히 서술하고 있으며, 태종대부터 숙종대까지 세화에 대해 열 번 남짓 언급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15세기 초 이전부터 세화가 존재하였고 연산군(16세기 초)에 잠시 폐지되었다가 복구되었고 숙종(17세기 후반)에 다시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록에 나타난 세화가 십장생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의 문헌에서 ‘세화십장생’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으므로 십장생이 세화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려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십장생의 소재들이 한 화면에 도상으로 나타나는 시기를 살펴보면, 중국의 도자 유물 중에서 신선들이 사는 장소인 선경을 통해 ‘축수(祝壽)’를 나타내는 중국의 길상 표현 중 십장생도의 구성과 밀접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명대의 공예품인 <그림 1> 각사선호집경(刻絲仙壺集慶)은 상서로운 구름이 서린 산수를 배경으로 노송과 복숭아 나무, 학, 사슴, 박쥐 다섯 마리, 영지, 천죽, 바위, 물로 구성되어있다. 같은 명대의 경덕진요에서 만든 <그림 2> 청화유리홍녹학문합자(靑花釉裏紅鹿鶴文合字)도 십



<그림 1> 각사선호집경
출처: 궁중유물전시관(2004). 십장생전. 시월



<그림 2> 청화유리홍녹학문합자
출처: 궁중유물전시관(2004). 십장생전. 시월

장생의 소재인 해, 구름, 소나무, 바위, 물, 학, 사슴이 그려져 있다.⁶⁾

이러한 도상은 중국과의 화적 교류가 끊이지 않았던 고려·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십장생 도상의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된다.⁷⁾

우리나라 십장생문과는 달리 거북이 그려지지 않고 특이하게 박쥐가 그려지긴 하였지만 우리의 십장생도와 아주 흡사한 구조와 구성요소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십장생도가 순수한 회화적 양식으로 화폭에 제작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며 본격적으로 유행·제작된 시기는 조선시대 후기로 보여 진다. 조선후기인 18, 19세기는 신홍상인들의 출현으로 사회전반으로 경계가 발전되면서 이전에는 대부분 궁궐과 사대부층에서 발전되었던 것이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서민들 중에서도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회화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회화는 순수 감상용보다는 장식용으로 그려진 것이 많았다.⁸⁾

3. 사상적 배경

인간의 불로장생에 대한 꿈과 희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십장생도는 단일사상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것이 아닌 역사와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십장생도의 생성에 영향을 끼친 사상으로 천신숭배, 샤머니즘, 유불도 삼교사상, 실학사상 등이 있다.

중국에서의 장수관념은 대략 은(殷), 상(商) 시기 이전부터 이미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은의 갑골문자 중에는 노(老), 효(孝), 질(耄) 등 수(壽)자와 비슷한 글자가 있으며, 주대의 청동기 명문 중에는 수(壽)자가 발견되어 연장(年長)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⁹⁾ 장생에 대한 염원은 우리나라의 고대신화에서도 볼 수 있으며 영원불멸하는 천신의 존재에 이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군신화에서 나오는 환인, 환웅 등의 천신을 숭배하는 사상에서 우리네의 장생사상을 엿볼 수 있다.

고대 중국의 애니미즘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

려진 도교는 고구려 영류왕 7년(624년)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왕권의 유지와 태평성세를 위해 오악(五嶽), 명산(名山), 대천(大川), 천지(天地), 일월(日月), 성신(星辰)에 제사를 지내는 도교관서의 형태로 명맥을 유지하였다. 도교는 무위자연의 사상에 음양오행설, 신선사상을 융합한 다신적 종교로 장생불사(長生不死)하면서 이상적인 세계에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문인들이 지은 청사문 중에 ‘흰 사슴’과 ‘붉은 구름’과 같은 십장생의 소재들, 그리고 수명을 관장하는 별인 북두성(北斗星)에 장생을 기원하는 등 장수기복의 관념이 표현되어 있다.¹⁰⁾

장수에 대한 사상은 유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유교 경전인 『시경(詩經)』에 ‘天保九如’라 하여 해, 달, 산, 물, 돌 등 9가지의 사물과 같이 나라와 임금이 만수무강하기를 하늘에 기원하는 시가 있고,¹¹⁾ 오복 중에서 수(壽)를 으뜸으로 치고 있다.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자연의 만물이 저마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인간의 길흉화복(吉凶禍福)에 관계한다고 보고 그것들을 신격화해서 기원함으로써 무병장수하기를 바랐다. 예를 들면 태양, 삼신산, 거목(巨木), 용, 물 등이 샤먼신의 대상이 되었으며 인간은 이를 그려서 소유하거나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그 신의 힘을 빌려 무병장수한다고 믿었다.

이렇듯 인간은 오래전부터 장수한다고 생각하는 기물을 숭배하고 기원하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지니는 행위를 통해 오래 살 수 있다고 믿어왔다. 이는 십장생이라는 하나의 화제로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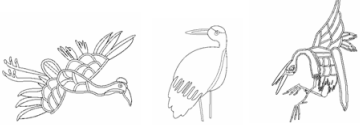





III. 자수유물에 나타난 십장생문의 조형성과 색채 특성분석

1. 십장생문 자수유물의 조형적 특징

자수유물에 나타난 십장생 요소별 조형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해는 원형이나 구름에 가려진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그림 3). 간혹 꽃모양이나 햇살을 표

<표 1> 십장생 요소별 조형적 특징과 형태

종류	조형적 특징	형태 분류
해	1. 원형 2. 구름에 반쯤 가려진 형 3. 도안상 윗부분이 잘린 형	
구름	1. 꼬리가 없는 형태의 도안 화된 점운(點雲) 2. 흘러가는 구름모양의 유운(流雲)형 3. 1+2 혼합형	
바위	1. 오악(五嶽)형태의 바위 2. 불쭉 돌출형 3. 단순화된 괴석형	
산	없음	.
물	1. 반원형의 수파(水波)형 2. 파두(波頭) 3. 잔잔한 물결형	
거북	1. 단순형·묘사형 2. 서기(瑞氣)의 유무(有無)	
학	1. 한 쌍의 학이 마주보며 나는 형 2. 하늘을 나는 단학 3. 나무, 땅에 앉은 형	
사슴	1. 단순형 2. 묘사형	
복숭아	1. 절지형 2. 나무형	
소나무	1. 전체를 메운 잎모양 2. 둥근 잎모양 3. 반원형 잎모양	
대나무	1. 가지를 작게 그린 형 2. 사실적 묘사형	
불로초	1. 바위 위에 있는 형 2. 땅 위에 있는 형 3. 사슴이 물고 있는 형	

* <표 1>에 사용된 십장생문의 이미지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유물에서 문양을 추출하여 분류해 놓은 『한국의 문양디자인Ⅱ-자수문양』 CD12)의 도판 이미지를 사용하였음.



<그림 3> 수저집



<그림 4> 수저집



<그림 5> 수저집



<그림 6> 귀주머니

출처: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2004), 한국의 자수 어제와 오늘

출처: 한국민속박물관(2004), 한국의 문양디자인II -자수문양, 대원사



<그림 7> 안경집



<그림 8> 수저집



<그림 9> 수저집



<그림 10> 가마방석

출처: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2004), 한국의 자수 어제와 오늘

현한 작품도 눈에 띈다(그림 4). 구름은 점점이 흩어진 꼬리가 없는 형태의 점운(點雲)이 대부분이고 1/3정도는 흘러가는 구름형태의 유운(流雲)이 차지하고 있었다. 산을 수놓은 경우는 없었고 대부분 바위가 화면의 좌측이나 우측에서 돌출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그림 5). 귀주머니에서는 흥배에 주로 사용되는 바위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그림 6). 물은 반원형의 수파(水波)형에 파두(波頭)가 표현된 것이 대부분이고(그림 7, 8) 2점은 잔잔한 물결형태를 보이고 있었다(그림 9, 10).

거북은 서기(瑞氣)의 유무(有無), 등딱지의 표현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별다른 차이는 없는 듯하다(그림 11). 학은 한 쌍이 마주보며 날거나 땅과 나무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12). 사슴은 자수의 표현방법의 차이만 있고 대부분이 서있는 모습이었다. 복숭아는 학이 물고 있는 가지형태로 1점

만이 있을 뿐 다른 유물들에서는 표현되지 않고 있었다. 대나무의 솔잎형태는 반원형과 원형과 가지를 덮고 있는 형으로 나타났다. 대나무는 마디를 자세히 표현한 사실적인 작품보다는 가느다란 가지에 길쭉한 잎으로 대나무임을 단순히 표현한 작품이 많았다. 불로초는 바위 위에 커다랗게 1~3개가 그려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끔 땅 위나 사슴이 물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그림 13).

2. 십장생문 자수유물에 사용된 색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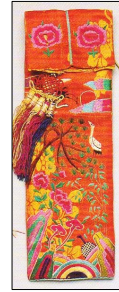
자수유물에 수놓아진 십장생 요소들을 구분하여 각각 어떤 색이 많이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듯 해는 오방낭자와 안경집에 수놓아진 백색을(그림 14, 15) 제외하고는 모두 적색으로 표현되었다. 구름, 바위, 물은 오방색(五方色)과 간색(間色)을 두루 사용하고 있었



<그림 11> 수저집



<그림 12> 베갯모



<그림 13> 수저집

출처: 한국민속박물관(2004),
한국의 문양디자인Ⅱ 자수문양, 대원사

출처: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2004),
한국의 자수 어제와 오늘

다. 거북은 적·청·황·녹 등의 다양한 색을 사용하고, 학은 백색이 대부분이고 황색과 청색을 사용하기도 한다. 사슴은 백색과 갈색을 포함한 황색계열이 대부분이다. 복숭아가 포함된 경우는 학의 입에 물려진 것 단 하나뿐이므로 색채를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그림 16). 소나무와 대나무는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녹색이고 가지부분은 적·청·황·녹색으로 묘사되었다. 불로초는 거의 대부분이 적색계열이고 청·황·백색의 불로초를 같이 수 놓기도 하였다.

이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문헌인 이색의 목은집과 성현의 허당백집의 십장생도에 대한 묘사에서 소나무는 푸른색, 불로초는 붉은색, 사슴은 흰색으로 그려졌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십장생문의 각 요소별 색채 선택에 있어 선호되는 색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조선 후기 자수유물에 나타난 십장생문과 음양오행사상의 연관성

한국의 전통색채는 음양오행에 기본을 두고 적, 청, 황, 백, 흑의 오방색을 기본색에, 정색과 정색의 혼합으로 생긴 홍(紅), 벽(碧), 녹(綠), 유황(硫黃), 자(紫)의 다섯 가지 색을 오간색이라 하여 열 가지 색을 기본색으로 사용한다. 이 색을 사용함에도 엄격한 관념적 질서를 따랐다. <표 3>과 같이 각각의 색은 그에 따른 각각의 방위와 계절, 위치, 오장(五臟), 맛 등과 관계가 있다.

<표 2> 자수유물에 나타난 십장생 요소별 사용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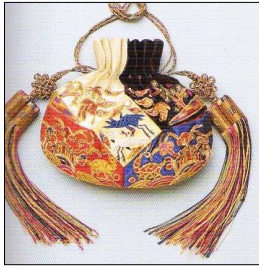
종류	색채	종류	색채
해	적·백	학	백·황·청
구름	적·청·황·녹·백 등의 다색	사슴	황·백
바위	적·청·황·녹·백 등의 다색	복숭아	황(백)
산	.	소나무	적·청·황·녹
물	적·청·황·녹·백 등의 다색	대나무	적·황·녹
거북	적·청·황·녹	불로초	적·청·황·백

* 빈도상 가장 많이 사용된 색채는 밑줄로 표시했음.

<표 3> 음양오행사상에 따른 오방색의 개념

색	방위	오행	위치
적(赤)	남(南)	화(火)	상(上)
청(靑)	동(東)	목(木)	좌(左)
황(黃)	중앙(中央)	토(土)	중앙(中央)
백(白)	서(西)	금(金)	우(右)
흑(黑)	북(北)	수(水)	하(下)

본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음양오행사상에 따른 오행의 배치 원리는 십장생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그림 17>은 십장생도 병풍으로 해는 화(火)에 해당하고 위쪽(上)에 위치하고, 소나무는 목(木)으로 왼쪽(左)에 위치한다. 대지,



<그림 14> 오방낭자

출처: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2004),
한국의 자수 어제와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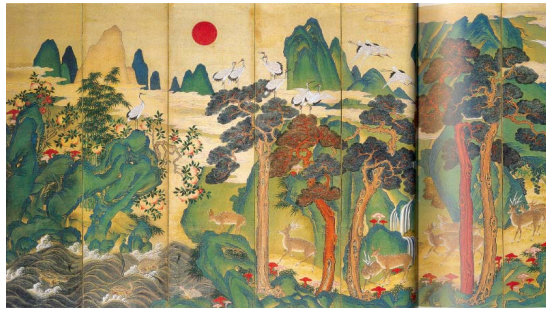


<그림 15> 안경집

출처: 한국민속박물관(2004),
한국의 문양디자인Ⅱ 자수문양, 대원사



<그림 16> 베갯모



<그림 17> 십장생도 10폭 병풍(조선시대 18세기 후반)
출처: 궁중유물전시관(2004), 십장생전. 시월



<그림 18> 수저집(조선 후기)
출처: 한국민속박물관(2004),
한국의 문양디자인Ⅱ 자수문양, 대원사

산은 토(土)에 해당하여 가운데(中央)에 위치하고, 바위는 금(金)으로 오른쪽(右)에 위치한다. 마지막으로 물은 수(水)를 상징하므로 아래(下)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색채에도 음양오행사상을 적용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해는 붉은색으로 소나무는 청색계열인 녹색으로 대지는 황색을 주로 칠하였다. 다만 바위와 물은 백색과 흑색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으나 위치를 정함에 있어서만은 그 질서를 따르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질서가 십장생문 자수유물(그림 18)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해는 적색으로 위쪽에 위치하고, 소나무는 녹색으로 대부분의 경우 왼쪽에 위치한다. 바위는 다색으로 채색이 되나 대부분 오른쪽에 위치하고 물은 아래쪽에 다색으로 수놓아졌다.

문헌이나 고려시대 유물인 낯겨울이나 조선시대 병풍에서 그려지는 십장생도와는 달리 자

수품에서는 약간의 구성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낯겨울이나 병풍에서 보여지는 복숭아나무가 십장생문 자수유물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으며, 문헌이나 유물에서 보여지는 산이 없어지고 바위가 수놓아져 있었다.

IV. 결론

인간은 예로부터 특정한 물건이 가지는 주술적인 힘이 그것을 소유하거나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그 힘이 인간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 조상들이 즐겨 그리던 십장생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십장생문은 인간이 수(壽)를 누리는데 기본요소인 의식주와 관련된 소품에 많이 쓰였다. 입는 것으로는 혼례복이나 돌복, 주머니 등에 십장생문을 수놓아 장수를 기원하였고, 밥 먹을 때 사용하는 수저

를 보관하는 수저집이나 나이든 노인이 주로 사용하는 안경집에 수를 놓아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바랐으며, 잠자거나 휴식할 때 사용하는 베갯모에 십장생문을 수놓아 오래살기를 기원하였다.

이러한 십장생도는 많은 사상적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음양오행사상에 의한 질서를 중시하고 있다. 장수를 상징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배치하고 색을 정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질서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해는 화(火)로 위쪽(上)에 위치하고 적색으로 표현되고, 소나무는 목(木)으로 왼쪽(左)에 위치하며 녹색으로 표현된다. 대지, 산은 토(土)에 해당하여 가운데(中央)에 위치하고, 바위는 금(金)으로 오른쪽(右)에 위치하고, 물은 수(水)를 상징하므로 아래(下)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질서는 십장생문 자수유물에도 적용되어, 각 구성요소들의 위치와 색채의 정형화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자수라는 장식적인 특성상 바위, 물, 구름 등은 오방색과 간색을 두루 사용하여 화려하게 수놓아 십장생도와는 다르게 과격적인 색채사용이 눈에 띄었다. 또한 복숭아나무가 십장생문 자수유물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산이 없어지고 바위가 수놓아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우리나라와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가까운 중국, 일본의 문헌 기록에 ‘십장생’이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는 것¹³⁾으로 알려져 있다. 십장생이라는 고유한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이고 다른 나라와는 달리 조선시대에 십장생이 널리 유행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십장생도가 장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림으로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발생 역사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의 독창적인 문화라고 주장하기엔 연구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자수품 중에서도 비교적 작은 소품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유물의 특성상 그 수가 많지 않음으로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복식자수품만이 아닌 병풍이나 민화, 도자기 등 다른 분야에 나타난 십장생문의 분석을 통해 이 연구와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다분야 관련 연구를 통

해 한국의 고유문화인 십장생문의 정체성 확립에 귀중한 연구 자료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1) 길선미 (1986). 한국 십장생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지희 (2004). 조선 후기 십장생도의 상징성과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박본세 (2002). 국립민속중앙박물관 소장 <십장생도>. 미술사론단 통권15호 한국미술연구소, p.57.
- 3) 강관식 (2001).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 상. 서울: 돌베개, p.432-434.
- 4) 박옥련 (2003). 장생의 염원 한국의 십장생문. 경성대학교출판부, p.22~27.
- 5)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검색일. 2009. 12.09,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 6) 궁중유물전시관 (2004). 병풍에 그린 송학이 날아 나올 때까지 십장생전. 서울: 시월. p.254~255.
- 7) 홍선표 (1999). 고려시대 일반회화의 발전. 조선시대회화사론. 서울: 문예출판사, p.126~159.
- 8) 권지희 (2004). Op. cit., p.6.
- 9) 蘇克明 (1994). 壽·壽禮·壽星. 서울: 사천인민출판부, p.4.
- 10) 李能和, 이종은 역 (1977). 조선도교사. 보성문화사, p.98~147.
- 11) 金榮振 (1996). 한국십장생도연구. 중앙민족대학 석사학위논문, p.21.
- 12)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의 문양디자인 II 자수문양 CD. 서울: 대원사.
- 13) 아키바 다카시 저, 심우성 역 (1993). 조선 민속지. 서울: 동문선, p.67~165.